

예산 심의 등 원만 처리... 제재·통제 강화

조계종 중앙총회 204차 정기회 개최

11월 3일 개원해 6일 폐회한 조계종 중앙총회 제204차 정기회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중무 행정 감사와 중앙총무기관 내년 예산 심의, 중법 재개정, 중단 주요 인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지고 원만하게 처리됐다.

중앙총무기관 내년 예산안이 중앙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50억 236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283억 9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800만원(4.1%) 가량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8000만원(18.4%) 가량이 늘어났다.

중법 재개정에서는 법계법·총람법·해외특별교구법·승려법·계단법·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등이 상정·논의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과 교구 발전에 대한 정책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이뤄진 직영사찰법 개정이다. 현행 직영사찰법 6조에는 총무원장이 지정한 직영사찰에 대해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직영사찰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바뀌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관악산 연주암 직영 전환을 선언하며 직영사찰법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이 제출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중단목적사업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중단 운영의 경험과 소신을 담았다"며 "이 법이 통과 되면 내년 3월 과천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대각회의 합의 사안을 조율 수 용을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이월 결정 과정에서 대각회 소속 스님들의 반발이 있었다. 자승 스님은 "대각회에서 3가지 사항은 대각회 권리 침해 사항"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법이 통과될 경우 대각회가 종단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번안동의안으로 제출된 총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장 임기를 10년 단임으로 규정한다. 다만 현 방장은 1회에 한 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정점이 됐던 임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선출직 임회위원을 폐지하고 당연직과 추천직으로 임회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4차 정기회를 개원했다.

중앙기관 예산 530억원 통과 중법 개정·정책 질의 등 활발

최다선 영담 스님 의원 제명 닷컴·포커스 '해중' 출입 금지 '비판에 충실하려 했다' 반박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개정돼 중단 미등록 법인 임원 및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으로 임원 및 도제로 한정됐다. 또한 법인의 재산권과 관리 운영권을 보장하

되, 중단과 합의한 경우 재산 변동에 대한 승인 및 법인 소속 사찰의 인사 등에 대해 총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재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 최다선 위원원 중앙총회의원 영담 스님은 왜곡된 언행과 중단비하 등을 이유로 의원 제명됐다. 비공개로 진행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61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53명을 넘겨 영담 스님의 의원 제명이 가결됐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은 해중언론으로 규정돼 중앙총회 및 총무원의 출입 정지 조치가 진행됐다. 중앙총회의원, 본사 주지, 총무원 등 참여하는 '해중언론 공동대책위원회'도 11월 6

일 구성됐다. 그 과정 역시 중앙총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고, 총무원과 중앙신도회는 곧바로 논평을 발표했으며, 기획실장·홍보특보 공동 명의의 입장문으로 신속하게 이어졌다.

홍보특보 법원 스님(대흥사)이 11월 6일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최근 중단 현안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를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마치 사실인양 왜곡·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해중을 넘어 웹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로 해중언론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6일 입장문에서 "언론의 사명 중 하나인 영향력이 큰 인물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바라보기에 충실하려 했던 것"이라며 "비방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다. 의혹 대상의 스님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진실하게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무원의 임무를 방기하고 그 공을 중앙총회에 넘기고는, 그 결과를 받아서 마치못해 시행하는 듯한 모습은 차도살인의 죄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원로의원 무산 오현 스님 추천 혜성 스님 대종사 전형 동의



무산 스님 혜성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조계종 중립 기본선원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또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된 정담 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도 만장일치로 동의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은 11월 5일 열린 제204차 정기회에서 원로회의 의원 추천과 대종사 특별 전형 동의의 건을 각각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무산 오현 스님은 1959년 직지사에서 성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 11대 중앙총회의원과 3교구본사 신홍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를 얻은 혜성 스님은 1956년 조계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3, 4, 5, 9, 10대 중앙총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도선사·호국지장사·개운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탱화 도난은 사실... 절도 주장은 허위"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10월 30일 공식입장 발표

홍국사 주지 시절 도난 당해 탱화,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 더 이상 명예훼손 목과 안해



"홍국사 주지 재직 시절 탱화를 도난 당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참회한다. 하지만 탱화를 절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단호히 맞서겠다."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이 탱화 절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일면 스님은 10월 30일 이사장실에서 이뤄진 차담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그간의 정황과 소회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홍국사 주지 재직 당시 문제의 탱화 2점을 도난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분명 저의 과오이며 지금

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여러 번 참회의 마음을 밝혔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참회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국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의현 스님 3선 반대에 앞선 일로 19개월동안 임명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도난 사실을 보고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게 일면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당시 선전적 간질환과 우울증이 동반돼 심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세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보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어떠한 이유라도 성보를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 훔친 사실도 없다"면서 "탱화를 분실하는 오점을 남긴 것을 수행자로서 치욕으로 여기며 지금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데 왜 탱화를 훔쳤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논란이 된 탱화 2점은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 위탁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일면 스님이 제시한 유물보관증서에 따르면 봉선사에 보관된 일직사자도와 월직사자도가 10월 29일부터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의 명예훼손은 목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일면 스님은 "일부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되찾기를 원한다. 음해성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든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일면 스님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했다. 문제의 탱화를 소지했던 비구니 스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적에서 몇 번 봤을 뿐이다. 안면 정도 있는 사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상 포교대상 수불 스님·염불만일회

진흥원, 11월 4일 수상자 발표... 특별상故 각현스님

13일 마포 다보원서 시상식 수불 스님 수상금 전액 기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사진 위)과 전국 염불만일회(사진 아래)가 제13회 대원상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11월 4일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포교대상 출가 부문 대상에는 안국선원 선원장이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재가 부문 대상에는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가 선정됐다. 출가 부문 특별상에는 2014년 입적한故 각현 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전 이사장)이, 콘텐츠대상 특별상에는 페이퍼아트 작가인 박명옥 씨의 종이 조각 '사유관세음보살상(조명 결용)'이 선정됐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콘텐츠 대상 수상작은 선정되지 않았다.

출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수불 스님은 서울과 부산에 선원을 개원해 시민들을 대

상으로 수 십 년간 한국 선(禪)의 대중화를 이끌며 선 수행을 통한 포교에 힘을 쏟아 왔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인재 봉사, 군포교 등 젊은 불교를 위한 삼보정재의 올바른 회향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故 각현 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전 이사장)은 1990년대 초,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개원을 시작으로 불교사회복지에 몸담아 2014년 입적할 때까지 25년간 사회복지에 헌신했다.

재가 부문 대상인 전국염불만일회는 명맥이 끊어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염불결사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로가 인정됐다. 콘텐츠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박명옥 씨의 종이조각 '사유관세음보살상'은 관세음보살과 사찰 꽃살문 등 전통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면서 종이를 활용해 만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특별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시상식은 11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나머지 500만원은 나눔의 집에 기탁하겠다고 11월 6일 밝혔다. 김주ыл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분한신고 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정기총회에서 중단명칭을 선교종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모든 재적승 및 선교승을 대상으로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고 기간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신고 및 서류심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1일
- (2) 신고대상 : 종단내 모든 재적승려 및 선교승
- (3) 제출서류
 - ① 분한신고서 ② 수행이력서
 - ③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3장
 - ④ 현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 (4) 신고방법
 - 신고인은 신고서류 를 구비하여 재적교구 중무원에 제출하며 그 외 신고인은 총무원으로 신고합니다.

- (5) 주의사항
 - ① 신고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한신고 시행원칙에 의거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 ② 승적 말소란 중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 ③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6) 문 의 처 : 총무원 총무부 041)566-2277